



‘도심 속에 심터 청계천을 가다’ 일년 내내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한 곳

서울의 한복판인 종로구와 중구의 경계를 흐르는 하천. 본래의 이름이 ‘맑은 개울’ 이라는 뜻의 청계천은 옛날 우리 선조들에게는 놀이터이자 빨래터였던 곳이다. 지난 2005년 10월 2년여의 공사를 마치고 22개의 다리를 중심으로 단장한 이곳은, 특히 서울 시민들에게 요즘 대세인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된다는 점에서 사랑받고 있는 곳이다.

취재 | 정책개발팀 박재정

청계천이 품은 역사

청계천이 품은 역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청계천 복원의 시작은 저 멀리 1410년 조선 태종 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름철 수차례 호우로 한양도성이 큰 피해를 입자, 한양관내를 관통하는 개천을 계획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생겨 개천도감이라는 이름으로 임시기구를 설치한다. 그리고 개천을 깊게 파고, 폭도 넓히며 제방을 쌓는 등의 일을 하였는데, 그 당시로서는 대역사로서 지금 청계천의 시초가 되는 공사였다.

현재 청계천 광고와 삼일교 사이에 있는 장통교를 중심으로 벽에 길이 186m, 높이 2.4m의 정조반차도가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조선 제22대 왕인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회갑을 기념하기 위해 어머니 혜경궁홍씨를 모시고 화성(수원)을 다녀와서 그 의전 행렬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1,779명의 인원과 779마리의 말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청계천 복원을 기념하고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한 은행에서 기증, 설치한 그림이다. 청계천을 찾는 국민이나 외국인에게도 좋은 역사 공부가가 되고 있다.

청계천의 볼거리

청계천에는 많은 볼거리가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청계천 초입에 있는 소라기둥 모형으로 정식 명칭은 ‘스프링’

이다. 높이 20m인 대형 조형물로서 세계적인 작가 올덴버그 부부가 디자인하였고, 의미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서 청계천에서 샘솟는 물을 표현했다. 소라 모형은 생김새 자체로도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만, 제작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많은 이들이 이곳을 만남의 장소로 애용하거나, 소라 모형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등 청계천의 명물이 되었다. 저녁이 되면 소라모형 사이사이로 경관조명이 비춰서 청계천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야경을 선물한다.



【그림 1】 조형물 ‘스프링’

또 다른 하나의 볼거리는, 일년 중 동절기를 제외하고 청계천 광고상단에 ‘디지털 캔버스’가 청계천의 밤을 수놓는다.

계절별 일몰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이 행사는 30분씩 5회 연출을 하고, 1회당 8분간 진행된다. 레이저로 분수스크린에 오로라, 새, 구름, 태권도, 해치(서울시 마스코트), 남대문 등 다양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것의 비밀은 안개를 스크린 삼아 빔 프로젝트를 쏘는 것으로, 가볍게 움직이는 형상도 연출 가능하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디지털 가든'이 마찬가지로 저녁때 광고 하단에서 매일 2시간씩 운영되는데, 꽃이 생성되고, 자라고, 소멸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이곳 역시 시민들이 오래 머물며 사진 찍는 핫 플레이스다.

청계천의 즐길거리

청계천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찾는 공간이지만 특히,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들의 공간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청혼의 벽을 만들어 두물다리 아래(청계천 9가)에서 젊은 연인들을 위한 프로포즈, 재혼 및 노인부부를 위한 앙코르 프로포즈 등을 할수 있게 꾸며 놓았다. 사용료는 무료이며, 신청은 청혼의 벽 홈페이지(<http://propose.sisul.or.kr>)에서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날짜·시간에 예약자가 미리 준비한 UCC, 영상 메시지 등을 스크린에 상영하면서 마음을 고백할 수 있다. 현재도 하루에 몇 건씩,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용기 있는 이들의 예약이 줄을 잇고 있다.



【그림 2】 청계천 청혼의 벽

테마가 있는 청계천

청계천문화회관 앞에는 1960년~1970년대의 청계천 주변을 따라 두 서너평 남짓한 좁은 공간의 방들이 수사가 옥처럼 다닥다닥 길게 늘어선 판자촌의 모습을 재현해 놓았다. 당시 서민들의 생활모습이 그대로 옮겨놓았는데, 옛날 학교교실, 구멍가게, 연탄가게, 공부방 등을 만들어 놓았고, 학창시절 체협(교복)도 가능해 학교를 졸업한지 꽤 된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한다. 교복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갖고 있는 현재 50대 이상 분들이라면 한번쯤 가보는 것도 좋다. 참 어렵고 힘든, 우리 부모님들이 살던 시절 모습을 보며 잠시 시간이 되돌려져 추억에 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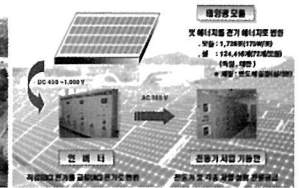
【그림 3】 청계천 판자집 테마존

청계천의 태양광 발전시설

서울숲 역 근처 폭도 아리수 정수센터에서는 한강물을 2급수까지 정수한 후 청계천으로 보내고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정수센터에 설치되어 있다. 비록 발전량은 전체 소비전력의 3.6%이지만 청계천의 1일 유지용수 양수에 필요한 전력이 33,000kWh인 것을 감안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연간 약 2,600만원의 전기료 절감, 91톤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감축, 682배럴의 유류 대체 등의 효과를 얻고 있다.



【그림 4】 태양광 발전시설 전경



【그림 5】 태양광 발전 계통도

청계천은 우리모두의 놀이터다

청계천이 복원된지 10년 남짓밖에 안되었지만, 그간 많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코스가 되었다. 개장후 현재까지 연인원 1억 3천만 여명이 다녀갔다고 하니 말이다. 젊은 사람들은 연인들과 추억을 쌓으러 찾고, 결혼한 부부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려고 청계천을 찾는다. 또한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은 옛 기억을 더듬고, 휴식을 위해서 찾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일년내내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고, 그들의 마음을 힐링시켜 주는 곳. 그래서 청계천의 매력은 무한대이다. ❖